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이 호 영

존경하는 신장학회 회원님과 환우여러분,
올해는 대한신장학회가 창립 2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또한 2001년 11월 대한신장학회가 주관이 되어 일반국민이나 신장환자들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최신의 의학정보를 제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간하게 된 “신장과 건강” 책자가 벌써 4년이 되었고 이제 제9호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우리 신장학회는 선대 회장님과 이사장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신장학회가 회원간의 학문적인 교류와 질적 향상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신장환자들에게 신장질환을 바르게 알리고 예방 및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대국민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호에서 토픽으로 다룬 신장병 조기검진에 있어 소변검사의 중요성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연간 5백만원 이상의 고액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의 순위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만성신부전증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1만 8천여명의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지불된 진료비가 단일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2천 1백 20억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시행하는 소변검사 비용은 1인당 원가가 2백70원 정도라니, 소변 검사야말로 신장질환 진단 및 예방에 저비용 고효율의 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장과 건강”이 바로 그런 취지에서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회를 거듭하면서 신장학회 회원 및 환우여러분 그리고 일반국민에게 더욱 정확하고 알찬 내용으로 규범이 되는 잡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신장과 건강 9호”가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조병수, 김향 홍보이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